

2010 희망을 쓴다 ④ 무용계 새바람 박종임·배강원 씨

몸으로 말하는 매혹의 춤사위 광주무용 한층 더 업그레이드

광주는 무향(舞鄕)으로 통한다. 지난해에도 광주현대무용단의 박종임(37)씨가 안무한 '천개의 공간'이 전국무용제에서 금상·연기상·안무상등을 수상하며 명성을 이어갔다.

지난해말 열렸던 김미숙하나무용단의 '꽃비'는 남자 무용수가 귀한 광주무용계에, 특출한 남자 무용수의 출현을 알렸다.

5월의 아픔을 노래한 이 작품에서 주역을 맡은 배강원(31)씨는 사람의 '몸'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지 '제대로' 보여주며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줬다.

"처음 안무 제안을 받았을 때는 업무가 나지 않았어요. 안무를 풀려면 무엇보다 무용수들을 잘 알아야 하는데 한창 나이 어린 후배들이라 그 과정이 만만치 않았죠. 트레이닝을 시키고 함께 동작을 만들면서 저 부러 많은 공부가 됐어요."

7일 만난 박씨는 지난해 '대작'을 만들면서 많은 고생을 했지만 그만큼 값진 경험을 얻었다고 말했다. 작품에서 주역으로 뛰었던 김미선씨, 스승인 임지형 조선대 교수와 함께 부대끼며 만든 '천개의 공간'은 그녀에게 큰 상을 안겨줬다. 또 지난해 가을 열린 광주국제공연예술제에도 참가해 또 다른 경험을 쌓았다.

박씨는 올해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잡았다. 전국무용제 부상으로 해외연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박씨는 현재 유럽 등 다양한 지역을 놓고 고심중이다. 흔치 않은 기회니 만큼 많은 준비를 통해 알차게 쓸 계획으로 무엇보다 발품을 팔아가며 다양한 공연들을 관람할 예정이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 무용의 흐름을 이기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 올해로 창단 20년을 맞는 광주현대무용단의 기념 공연에 도움을 주고, '천개의 공간'을 광주에서 재공연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박씨는 "인퍼트가 강하고, 역동적인 안무 구성에 조금 자신감이 생겼다"며 "작품을 준비하면서 느낀 건데 앞으로 무용뿐 아니라 문화 전반에 대한 공부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큰 성과를 낸 안무가 박종임(사진 오른쪽)씨와 무용수 배강원씨는 올해도 광주 무용의 든든한 중추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박종임 해외 연수통해 세계 선진 무용 경험 쌓을 것 배강원 박사과정 진학 이론 실기 갖춘 무용인 꿈꿔

배씨는 2009년 흥분한 마음으로 춤을 췄고, 찬사를 받았다. 남자무용수에게 가장 큰 고민은 군대 문제. 군 면제 자격이 주어지는 동아공무에서 아깝게 은상에 머물러 군대를 다녀와야 했던 배씨는 군대에 가기 전에는 오히려 조바심이 났는데 군생활을 하며 '춤'에 대해, 자신의 장래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군에서 제대한 2009년, 배씨는 모교인 광주대학교와 화창시절 은사인 김미숙씨의 무용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활판출발을 알렸다. 배씨는 특히 '꽃비'를 통해 강한 인상을 남겼다. 특히 무대 위로 쏟아지는 소나비를 맞으며 독무를 추는 장면은 리하설이 전혀 없이 진행했던 터라 긴장하기도 했지만 노련함으로 최상의 연기를 선보여 많은 감탄을 받았다.

배씨는 다른 무용수가 비해 체구가 작을뿐이지만 무대에서는 꼭 차 보인다. 남들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역동적인 춤사위가 돋보이는 등 테크니적인 면에서 많

은 강점을 갖고 있다. 또 표현력과 감정표현도 자신 있는 부분이다.

배씨는 올해도 김미숙하나무용단과 세종대 은사인 양선희 교수가 이끄는 춤다솜 무용단을 비롯, 다양한 무대에 오를 계획이다.

배씨는 무용수뿐 아니라 안무가의 꿈도 꾸고 있다. 그래서 하반기에 세종대 박사 과정에 입학, 체계적인 공부를 통해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무용인의 기반을 닦으려 한다.

또 하나 올해는 한국창작춤 뿐 아니라, 한량무·승무 등 한국 전통무용을 체계적으로 연마할 계획이다. 한국무용은 하면 할수록 더 어렵다는데, 그 어려움을 풀어나가는 해답은 바로 기본이 되는 전통춤에 있기 때문이다.

배씨는 "군대에 대한 압박감이 꽤 컸는데 군대가 마무리되면서 무대에서도 열심히 춤을 추고, 또 학업에도 매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끝>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원화의 감동 '판화'로 느낀다

천경자·박수근 등 한국대표 작가 작품
내달 21일까지 대의동 '갤러리 D'서 전시

천경자, 이왕종 등 국내 대표 작가들의 오리지널 판화와 박수근, 이중섭의 사후에 제작된 복제판화를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가 광주에서 열린다.

광주시 동구 대의동 '갤러리 D'(관장 김경자)는 오는 2월21일까지 박수근, 이중섭, 김환기, 천경자, 장욱진, 이대원, 이왕종, 오승윤 화백의 판화 작품을 모은 '한국 대표작가 판화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한국 근대 추상 회화의 선구자인 고 김환기 화백의 대표작 '달과 향아리'와 천경자 화백의 '윤사월' 등의 판화 작품을 선보인다.

'달과 향아리'는 부드러운 백자의 곡선과 하늘의 새와 달 등이 조화를 이룬 작품이며, '윤사월'은 꽃으로 치장한 여인의 옆모습을 담았다.

또 동화·전설·이웃 등을 소재로 한 그림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고 장욱진 화백과 제주도에서 생활하며, 해학 넘치는 그림을 선보이고 있는 동양화가 이왕종 화백의 작품도 만날 수 있다.

이왕종 화백의 '제주 풍경'과 '골프도'는 이화백의 화풍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작품으로 밝은 채색과 그림 속 주인공들의 유머러스한 모습이 웃음을 짓게 한다.

오방색의 화려한 색채로 산과 구름 새 등을 표현했던 고 오승윤 화백 '풍수' 등도 눈에 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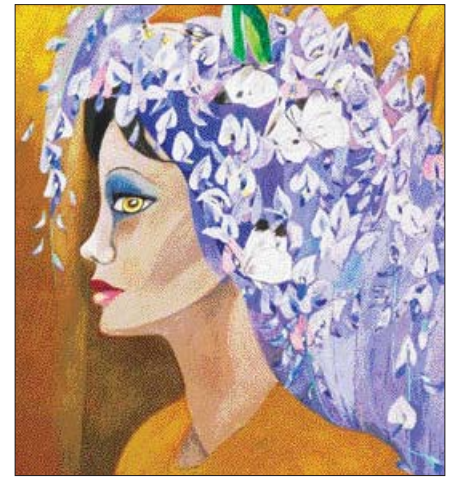
이 밖에 이번 전시에 함께 선보이는 박수근 화백의 '빨래터' '귀로'와 이중섭 화백의 '흰소' 등의 판화도 원작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한다. 이들 작품은 현대갤러리가 최근 제작한 복제판화이다.

'빨래터'는 박수근 작품 특유의 화강암 같은 거친 질감을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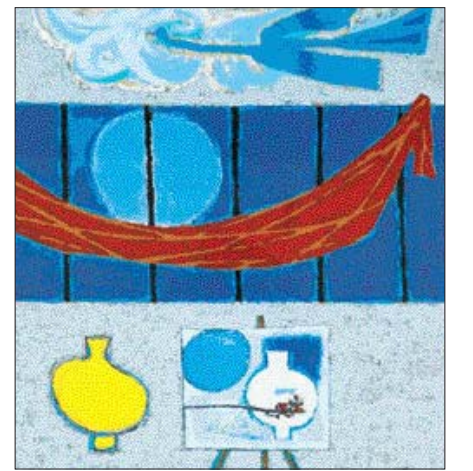
또 '귀로'는 그가 즐겨 그렸던 소재이며, 머리에 짐을 인 여인의 모습과 마을의 풍경이 정겹게 묘사돼 있다.

이중섭의 '흰소'도 힘이 넘치는 굵은 선으로 소의 골격을 표현해 마치 꿈틀거리는 듯한 생동감을 준다.

문의 062-222-8011.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천경자 작 '윤사월'



김환기 작 '달과 향아리'

회화·조각으로 꼬집는 욕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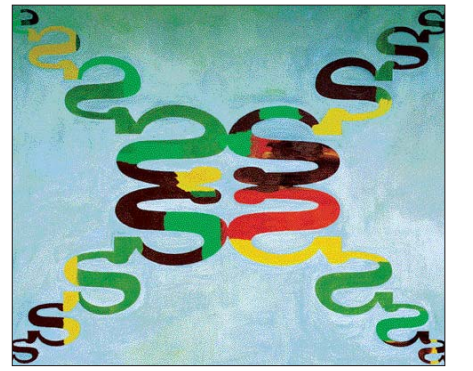
동신대 문화박물관 3월 15일까지 '명품전'

동신대학교 문화박물관은 오는 15일~3월15일 '명품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김일근, 김정선, 양문기, 조윤성, 채종기씨 등이 참여한 명품을 소유하기 위한 현대인의 끊임없는 욕망을 꼬집는 다양한 작품을 선사한다.

김정선씨는 가짜 명품 가방을 통해 상류

사회로 진입하고 싶은 소시민들의 욕망을 비판하고, 김일근씨는 종이로 만든 명품 가방을 통해 현대인들의 허상을 형상화했다.

또 조윤성씨는 내용보다는 겉치레에 치중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유명 상표를 통해 드러내고, 채종기씨는 인쇄가 잘못돼 폐기된 돈다발로 만든 인물상을 전시한다. 문의



조윤성 작 '기호적 풍경'

061-330-3827.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지역 초·중·고교에 예술강사 451명 배치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광주·전남 등 전국의 5천436개 초·중·고교에 예술강사 4천156명을 배치, 지원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미 선발 절차가 끝난 지원 강사는 작년보다 673명(19.3%)가 늘어난 규모로, 분야별 지원 강사는 국악 1천568명, 연극

845명, 영화 330명, 무용 801명, 만화·애니메이션 500명, 공예 49명, 디자인 39명, 사진 24명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661명, 경기 513명, 경북 390명, 전북 342명, 경남 317명, 부산 283명, 전남 268명, 강원 214명, 충남 206명, 광주 183명, 충북 175명, 인천 169명,

대전 134명, 울산 117명, 대구 106명, 제주 78명 순이다.

초·중·고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예술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벌여온 사업으로, 문화부와 시·도 교육청이 50%씩 예산을 부담한다. 문화부는 문화예술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학교 문화예술 교육 강화를 위해 2008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업무협약도 맺었으며 2012년까지 예술강사 수를 5천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연합뉴스

냉·온 정수기 렌탈 월 19,900원

정수기프라자 1544-1219

"비밀 통 안락사(비밀)란 사소한 불편한 것이입니다."

침략된 구조를 복원 및 연약지반 보강공법의 신개념!!

비밀통 플러그를 이용한 국내에서 개도된 지반소속세상법 전문보수법

1. 문제점
2. 해결책
3. 효과

비밀통 지사(비밀)주

www.secretplug.com